

似한것 Chopping tool이라는 것은 우리 漢沙里나 淸湖里式的 橢圓形 磔製 雙器로서 磔에 橫位 打撃을 加해 넓고 얇은 剝片을 매번 石器다. 이 밖에는 다른 遺物은 없다.

이 遺物은 報告된 대로 믿으면 日本 最古의 遺蹟으로서 매우 重要하지만 아직 遺物出土層位가 確實치 않고 더구나 共存 動物遺骨이 絶無한 것이 遺憾이며 앞으로 좀더 仔細하고 確實한 發掘이 要望되는 바이다.

그런데 一〇月一六日 日本 朝日新聞의 記事를 보면 이 丹生遺蹟은 後同志社大學의 酒詰教授等 調査團이 發掘해 따로 剝片 石器等을 發見하였다고 하며 아울러 地層調査 結果 그것이 十萬年前의 下末吉層보다 古期임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그 詳報가 速히 發表되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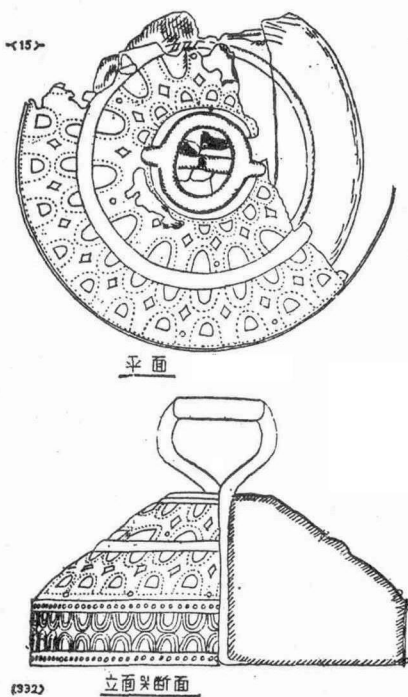
한편 같은 朝日新聞에 依하면 이 丹生遺蹟에서 멀지 않은 聖嶽(히지리 다케) 洞穴遺蹟에서는 새로이 別府大學의 賀川教授들에 依해 舊石器時代人의 後頭骨 一部와 같은 人骨(脛骨 및 撓骨)로 만든 尖器가 發見되었다고 한다. 從來 明石原人이라고 불리운 通稱 舊石器人의 遺骨이라는 것이 日本에서 發表되어 그것이 戰後關東地方의 岩宿遺蹟 등의 舊石器層의 發見과 함께 새로운 檢討를 받게 되었지만 頭骨로서는 이것이 처음이며 이 發見의 豫報가 確實하다면 日本에서의 舊石器文化存在는 이제 疑心할 바가 없게된 셈이며 그 石器가 널리 東南亞地區의 所謂 Clapper 文化圈에 屬하고 있는 것도 興味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일찌기 德永氏가 發表한 沖繩의 舊石器遺蹟도 이에 連關시켜 確實性이 있게 될런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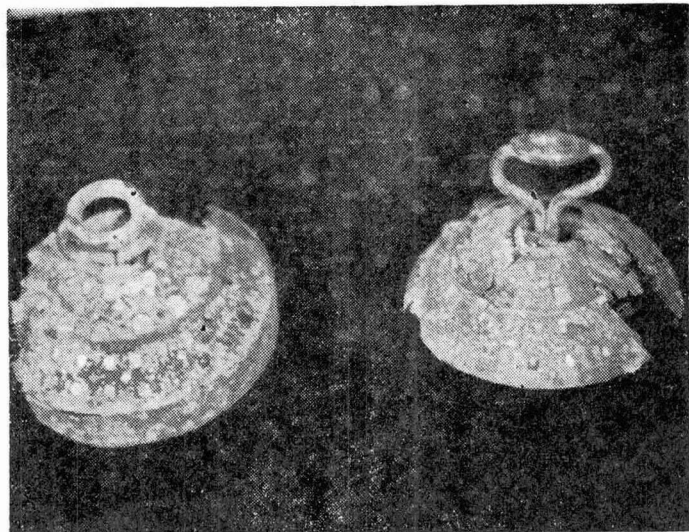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아직 舊石器文化 遺蹟이 發見된 것이 없지만 日本에서의 舊石器文化 確立은 우리에게 새로운 興味와 刺戟을 주는 바이다.

### 銅製木心金銀鍍 甲裝豆蓋形

崔 淳 雨

最近 昌寧出土라고 傳하는 馬具 一쌍을 包含한 興味있는 一連의 새 遺物을 調査할 機會가 있어서 우선 그중의 하나를 여기에 써두고자 한다. 이름붙이지 않으면 銅製木心金銀鍍甲裝豆蓋形이라고나 할까. 마치 豆의 蓋部와 흡사한 形態로 透彫된 銅製의 甲裝內部에 同形의 木心을 넣어서 만든 한쌍의 異形器이다. 木心은 現在 매우 收縮되어서 甲裝과 分離되어 있지만 甲裝위에 장식적으로 짙은 點線狀의 못 끝자욱이 아직도 이 木心に 歷然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原來는 木心に 密着해서 이 金屬甲裝이 써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蓋形의 꼭지部分은 徑約 五mm 정도의 靑銅 동쇠를 구부려서 環金狀의 頂部를 이루었고 이 고리쇠에서 二肢의 銅心이 左右로 등글게 갈라지면서 하—트形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木心頂部에서 합쳐 이 木心を 垂直貫通했고 木心底에서 이 二肢의 銅心은 錨狀





으로 마감처져 있다. 이 環狀의 꼭지 쇠와 透彫甲裝에는 鍍金을 했었으며 甲裝天部に 透彫된 菱形과 半橢圓形의 間地에는 두꺼운 銀箔을 입혀서 장식했고 이것은 마치 吉丁虫 날개를 同一한 技法으로 장식했던 同期古新羅의 工藝品과 흡사한 意匠手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甲裝의 上邊 垂直側面에는 押形으로 보이는 同心復輪으로 된 半橢圓形文을 上·下二段으로 등을 맞추어 羅列했으며 亦是 押形으로 보여지는 丸點文이 이 垂直側面의 上·下邊에 連珠狀으로 장식 되어 있다. 현재 二·五cm 内外의 間隔으로 銅釘이 甲裝위와 側面 垂直臺輪에 各其二段으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木心과 金屬甲裝을 固着시켰던 木心에도 같은 位置에 그 木心과 金屬甲裝을 固着시켰던 木心에서 銅釘의 天部와 垂直側面臺輪은 銅釘으로 結着시켰으며 現在 이 全體의 스케일은 直徑이 一一·五cm 内外 總高는 八·一cm 内外이다.

이 遺物에서 特別注意를 끄는 것은 甲裝의 頂部に 腐蝕된 纖維片이 附着되어 있으며 細密하게 觀察하면 甲裝表面에 근대 근대 섬유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점이다. 現在 金箔이 脫落된 部分에서 紫朱色에 가까운 銀銹狀의 녹이 나타나고 있으나 全面에 나타난 녹은 역시 銅綠色이어서 素材는 青銅으로

인정된다. 이 異形器의 伴出物이라고 하는 馬具類雲珠의 樣式으로 보나 豆形高杯에 類似한 蓋部樣式으로 보나 古新羅領域 또는 그 隣接文化의 產物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 一括遺物을 紹介할 때에 詳述해 보고 싶다.

### 青銅製 僧坐像

洪 思 俊

지난 六月十五日 경북道에서 送品된 青銅製僧坐像은 경북 金陵郡 直指寺 黃鶴山에서 出土된 것이다. 作品이 美麗하지는 않으나 兩肩에 袈裟걸방을 메고 左右手를 合掌하고 다리는 結伽趺座한 것이 禪覺을 爲하야 一心精力이 三昧境에 이른 듯한 姿勢여서 매우 敬虔한 表現이라 하겠다.

은 坐리와 입귀가 위로 올라갔고 頭部와 兩肩사이의 목(頸)이 좀 앞은 感을 준다. 僧像의 前腹部와 後背面에는 袈裟文儀가 比較的 明確하고 方形座臺側面들에는 忍冬文陽刻線이 나타나 있다. 座臺에 부처서 만들어졌던 欄干이 歪曲되었고 거기에 前面欄干은 竿柱만 서있다. 全體로 보아 座臺가 僧像에 比해서 얇다. 鑄造方法은 模型을 만들어 青銅을 流入한 듯 殘滓粉末이 前面座臺及 趺坐脚部에 붙어 있다. 鑄造後 袈裟에 彩色을 한 듯 左肩一部와 臂部及 脚部에 若干의 黃色이 붙어 있다. 座臺底面은 中空되고 僧體內도 中空이다. 時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된다. 僧像坐高 一七·八cm 座臺高 二cm 前後巾 九·五左右

